
2020년 제25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6. 12. ~ 6. 18.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6. 12.	시청률	0.023

【총 평】

<여러분의 북마크>는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첫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의 의미, 내용, 배경, 효과, 우리의 자세와 과제를 차분하고 세밀하게 분석한 기획이 탁월했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경협사업과 이산가족 상봉의 새로운 물꼬를 튼 점을 유의미한 결과로 분석하고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솔루션을 제시한 점이 설득력을 높였다.

특히 최근 북한이 남북간 통신선을 차단하고 대남사업을 적대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을 언급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현 시점에서의 대응 자세와 향후과제를 진단했다. 첫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이 나오기까지의 6.15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한 부분도 흡인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그날의 감동과 의미 있는 순간을 되돌아봤는데 시의 적절한 기획이었다.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남북공동선언문을 도출했다. 최근 북한이 우리에게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채널을 단절시키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텃던’ 남북공동선언 의미를 살펴보고 남북문제를 짚어보는 기회가 주목을 끌었다.

<단박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통해 ‘한반도 첫 평화의 물꼬를 튼 공동선언 의미’를 상세히 짚어봤다. 정상회담의 성과를 자주적 해결, 공통성 인정, 그리고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지 않고 전했다.

남북공동선언이 성사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선 정주영 회장이 구축한 대북소통라인, 두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의 일관된 햇볕정책, 세 번째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경제난 극복의지로 결국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평가한다. 공동선언문의 내용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의 방식, 이산가족 방문단, 경제협력 등 4가지가 주요 내용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후 다양한 교류협력이 뒤따라 이뤄졌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 비하인드 스토리로 남북정상이 두 번 악수를 한 이유, 회담이 결렬 직전까지 간 사연, 쏘맥이 평화의 술이 된 사연, 대통령 부부가 이산가족이 된 사연 등을 흥미있게 설명해 흡인력을 높였다.

<북마크TV>는 ‘남포양식장’과 ‘북어독’ 이야기는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었고, 식량과 의약품 부족 등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빚어지는 경기침체속에 북한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마무리 메시지도 강한 여운을 남겼다.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0. 6. 12.	시청률	0.008

【총 평】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수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 전 분야 중, 큰 틀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국가교육회의'를 방송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과 함께 다양한 시각으로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교육 환경의 변화를 시급하게 진행 중인 국가교육회의 관련한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김의장은 남다른 시각으로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사회적 협의를 위해 노력한 2018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교육 개혁의 기본 패러다임을 바꾸는 2030 미래교육 체제 방향 수립 작업, 정밀한 설계와 국회 통과와 설립 목표 등을 설명했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못내는 분야 중의 하나가 교육이다. 하지만 더디 가더라도 독심을 갖고 기초부터 개혁해 나가려는 국가교육회의의 방향성이 잘 보였고,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당위성과 신뢰감을 잘 드러냈다.

【구성 및 내용】

대한민국 교육을 걱정하는 시청자들에게 메시지 전달 효과를 내는데 유효했다.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들에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기본학습의 중요성을 알리며 매뉴얼 사회가 낳은 문제, 다양한 아이들에게 맞는 소통 교육, 교육 행정과 교육 재정 역할 변화 등 교육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함을 알린 방송이었다.

특히,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이 어떻게 바뀌었고, 미래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이와 함께, 성취 지향 교육만이 아닌 좋은 삶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함을 강조했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가보지 않는 교육의 길로 들어설 필요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새로운 플랫폼을 바탕으로 고교 학점제 등 교육공간을 넓힐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교육의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 불안감과 긴장감도 시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 관한 날카로운 지적과 교육의 민낯이라는 표현으로 아쉬움을 토로해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교육의 디지털화를 이루려면 어느 정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언급한 점도 설득력이 있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을 언급할 때 예비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도 언급이 되어 아주 인상적이었고, 우리 교육의 딜레마를 언급하면서 30년간 변화가 없는 교육과정을 지적한 부분도 무척 시사성이 있었다.

OECD 국가들의 교육과 우리 교육을 비교해서 평가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이 언급되어 좋았고 교육 기득권에 대한 메시지는 아주 날카로워서 말 그대로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다. 마무리 부분에서 '개혁의 출발은 분노지만 개혁의 완성은 부끄러움'이라는 비유가 심오해 큰 여운을 남겼다.

프로그램	밥보다 법		
방송일자	2020. 6. 13.	시청률	0.025

【총 평】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후원 기부금 및 법인 관련 불법행위 '횡령 및 배임사건'의 법적 처벌과 주의해야 할 법적 논점 등을 알려주는 시간이었다. 오늘 주제는 '횡령 및 배임사건'으로 남 얘기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음을 보여 준 생활 속 법률 사례였다.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이야기였지만 시청자들에게 정보는 물론 경각심을 준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나눔의 집' 기부금 횡령 사건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으로써 이를 계기로 후원금·기부금·보조금의 차이를 사례별로 구분하여 알려주었다.

법률다락방에서 다룬 '기부할 때 유의점'은 올바른 기부 문화를 형성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고, 밥상머리차트는 아이디어가 돋보인 코너로 중요 문제에 대해 핵심만 짧게 요약하여 쉽게 설명했다.

【구성 및 내용】

밥법드라마는 보육원 후원금 횡령과 배임에 대한 내용으로 콩트로 구성했고, 법률다락방에서는 기부금 횡령과 배임에 대한 법적 처벌의 근거를 살펴봤다. 밥상머리차트는 횡령에 얽힌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봤다.

기부금이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되어진다면 횡령과 배임죄가 될 수 있음에 관해 법률적 정보제공과 함께 횡령과 배임죄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기부금은 사용처에 맞게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야 하는데 개인이나 단체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 흔한 횡령에 속하는 경우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기부금을 반환 신청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거쳐 반환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일지라도 목적이외에 사용하게 되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어 자칫하면 저지르기 쉬운 횡령죄 유형으로 유념해야 할 부분임을 전달했다. 공동주택에서 흔히 일어나는 업무상 횡령죄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결정한 절차적 정당성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목적용도 이외에 사용되어질 때 적용된다는 점이다.

또, 정의연 나눔의 집 횡령 문제를 다루면서 횡령과 배임의 차이, 재산과 재물의 정의,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문제까지 폭넓게 살펴보아 많은 궁금증을 해소했다. 또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우리 내부고발자 보호의 현주소를 짚어보았다.

이와 함께 잘 알려진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맹신하고 후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전달했다. 최근 화두로 등장한 정의연 및 나눔의 집도 개인적 비리 등 정당한 기부금의 사용처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로 기부금에 대한 지출 증빙을 반드시 해주는 곳에 기부를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6. 13.	시청률	0.029

【총 평】

<우리동네 개선문> 제27회는 담장을 허물어 좁은 도로 환경을 개선한 사례와 열차소음으로 60여 년간 불편을 겪어온 주민고충이 해결된 수범사례가 소개됐다. 아파트 담장을 허물어 통로를 확보한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사유지 소유 주민들의 반대를 현장간담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한 사례로 다른 지자체에게 본보기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또, 60여 년간 소음과 먼지 공해에 시달린 익산역 철도관사 마을의 경우 권익위원회의 적극 중재로 방음벽 설치, 열차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관사 교육 실시 등 솔루션을 이끌어낸 점이 돋보였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민원 해결의 배경에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설득과 중재, 이해관계 주민들의 양보, 관련기관들의 고충처리 의지 등이 주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성 및 내용】

광주광역시의 가로수 취재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과 지자체의 상호 이해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자체도 열린 행정으로 호응해서 해결책을 도출한 과정을 취재했다. 지역공동체가 자주 겪게 되는 공동의 이익과 사유재산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한 경우여서 의미 있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주변인도에 식재된 가로수가 20년 넘게 자라면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해, 공간확보를 위해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인도 평탄화 작업 등을 진행하여 인도공간을 기존보다 30cm 이상 확보하였다. 물론 아파트 담장은 사유재산으로 해당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하였으나 행정당국이 꾸준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여 이뤄졌다. 막상 해당 정비가 이뤄지며 대다수 주민들이 변화된 모습에 만족하였다.

익산역 철도관사마을의 소음과 분진 민원에 대한 취재는 기자가 왜 현장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줬다. 기자가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인터뷰하고 문제를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정답에 가까운 취재 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취재하고 자료영상을 통해 백업함으로써 실증적인 취재를 만들어냈다.

전북 익산시의 익산역에 방음벽이 없어 역 인근마을의 주민들은 60년 넘게 철도 소음에 시달려왔다. 마을 주민들은 철도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 먼지 피해까지 받아왔다. 지역주민들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국민권익위의 조정과정을 거쳐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었다. 내년까지 방음벽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코레일은 익산역 진입 시 속도를 많이 감속하는 기관사 교육을 실시하고 익산시 완충녹지공간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프로그램	KTV 특별기획 DMZ 공존 2부 '편지, 기억의 재구성'		
방송일자	2020. 6. 14.	시청률	0.027

【총 평】

KTV 특별기획 'DMZ 공존' 2부 '편지, 기억의 재구성'은 만약 70년 전 가족이었던 인민군이 쓴 편지가 당신에게 배달된다면 어떨까? 라는 의문부호로부터 출발한다. 연합군의 월미도 상륙작전 당시 인천에 주둔해 있던 인민군들의 부치지 못한 편지를 당시 인민군의 나이와 같은 대학생들이 당시의 편지봉투와 똑 같이 재현해내며 그들의 사연에 빠져든다. “어머님 건강히 잘 계신지요”로 시작되는 어머님 전상서는 가슴뭉클한 감동과 함께 출신이 서로 달랐을뿐 그들도 결국 같은 민족이었다는 점을 일깨운다. 이는 큰 오빠는 국군 공병대로 작은 오빠는 인민군으로 형제끼리 서로 총부리를 겨눠야만 했던 기구한 가족사 에서도 입증된다.

【구성 및 내용】

'DMZ 공존' 2부 '편지, 기억의 재구성'은 인민군의 부치지 못한 편지라는 희귀한 소재를 바탕으로 인민군도 같은 민족, 가족이었음을 상기시키며 동족상잔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평화와 공존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기획이 뛰어났다. '편지'가 주는 이미지와 감성적 요소를 중심에 놓고 구성해 스토리라인이 흐트러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었다. 인천 덕적도와 강원도 고성에서 스토리텔러에게데 관찰자 역할을 부여했는데 훌륭하게 소화했고, 내용에 느낌을 더한 좋은 설정이었다.

'편지, 기억의 재구성'은 제작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콘셉트가 잘 드러난 상징적인 타이틀이었고, 평화가 왜 중요한지 직접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전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져놓고 나머지는 시청자의 몫으로 남겨놓은 것도 좋은 선택이었다.

인민군의 편지가 배달된다면? 이라는 충격적인 도입부가 흡인력을 높였고, 같은 연령층이었을 인민군과 대학생들의 아픔 공유를 설정한 대목이 몰입도를 높였다. 또, 당시 체험자들의 생생하고 절절한 인터뷰의 높은 소구력과 다큐성을 살린 시각적 '기억의 재구성'이 사료적 가치를 제고했다. 특히 6.25를 겪은 고령층 구술채록을 통해, 역사적 현장 탐방과 기록물을 통해 다큐성을 살린 구성도 사료적 가치를 높였다. “나는 인민군 출신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인민군이었습니다” 이제야 자기고백을 하는 80대 노인의 절절한 인터뷰가 한국전쟁 아픔의 생생한 증언이었다.

한국 전쟁 당시 민간인 피해를 입은 인천 덕적도에서부터 북한군 관할 지역이 되었다가 다시 국군이 수복하여 남한 땅이 된 강원도 고성과 철원의 일부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강원도 고성은 해방된 이후 북한지역으로 편입되었다가 1954년 수복되어 지역과 관련된 역사가 소실되었고 해방 후 한때 북한이 철원을 관할하면서 조성된 북한군 노동당사는 아직 남아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6. 14.	시청률	0.032

【총 평】

<PD 리포트 이슈 본> 제299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잘 쓰고 계십니까?'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국민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송이었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제도를 시행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시행 2개 월차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소비되고 있는지, 만족도는 어떤지,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중간 점검해보면서, 소상공인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실효를 찾아보았다.

【구성 및 내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주요 사용처와 평가를 위해 시장과 마트 등을 돌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직접 취재를 통해 증명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의 잘못된 행태와 개선점을 제시하며, 다른 차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한 물품을 푸드마켓에 기부하는 가족을 소개하면서 기부의 의미도 되새겼다.

재난지원금으로 지역경제가 활기를 띄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었고, 떡집을 비롯해 안경가게, 과일가게, 방앗간 등의 지역경제 소상공인들의 가게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발로 뛰며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 신뢰감을 갖게 하였다. 재난지원금 덕분에 조금이라도 실물경기 회복되는 곳도 있었지만 여전히 재난지원금의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곳과 예기치 않은 불편사항들이 겹쳐져 혜택을 입지 못하는 영세 상인들의 그늘진 곳도 프로그램에 담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균형을 이뤄주었다.

특히, 재난지원금 덕분에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의 활기가 살아나 어려운 가운데 잠시라도 웃으며 쉬어갈 수 있는 삶의 풍경 소식과 함께 병원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자 피부과 및 성형외과에서의 재난지원금 사용은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실손 보험료의 환급 신청건수가 늘어난 것이 통계에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재난에 준하는 상태에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다양하게 쓰여지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또, 재난지원금으로 가정 경제도 잠시나마 여유가 생기며,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 만족감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사와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었으나 제도가 보완되어 지역변경이 가능해지는 빠른 행정절차에도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에 크게 공감하고 연대감을 형성하는 좋은 기회였다.

프로그램	KTV 특별기획 DMZ사계(四季)		
방송일자	2020. 6. 15.	시청률	0.128

【총 평】

<KTV 특별기획> DMZ사계(四季)는 '66년 동안 시간이 멈춘 땅', '금단의 땅', 백두대간의 허리 비무장지대에 남아있는 6.25전쟁의 상흔과 함께 생태계를 살펴보고 남북분단의 상징 DMZ를 남북 화합과 상생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해보자는 메시지를 담은 기획이 탁월했다. 특히 호국보훈의 달, 한국전쟁 70주년을 앞둔데다 첫 남북정상 회담 개최일이자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당일 방송된 의미가 남다르고 시의성도 적절했다. 특히, 분단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긴 역사의 현장에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등 복합유산을 집중조명한 다큐로서의 가치가 돋보였다.

특히 성경환 한국정책방송원장의 중후하고 맛을 살린 내레이션이 메시지 전달력을 크게 높였고, 연출자를 비롯한 제작진들의 사명감이 작품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6.25 전쟁 70주년이라는 시의에 맞게 단순하게 풍광이 주는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DMZ를 어떻게 바라봐야할 것인지에 대한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한 다큐였다. 자연다큐적 요소가 주는 시각적 호사에 시사다큐적 관점을 더해서 분단, 통일, 화합 그리고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는 화두를 던진 수작이었다.

4계 4색을 차별되게 담으면서도 공통되게 '움트는 생명력과 복원력'을 강조, 분단국가로서 가질 만한 희망과 염원, 그리고, 통일과 평화에 대한 염원의 메시지와 잘 어울렸다.

360도 VR카메라와 드론 촬영으로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의 곳곳에 산재한 사계절 자연의 빼어난 풍광과 살아 움직이는 희귀 동식물의 생태를 포착한 영상물이 압권이었다. 희귀조류인 두루미의 월동서식, 비상하는 두루미의 모습 등은 자연다큐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66년 발길이 끊겼던 생태계의 보고 DMZ 내에서의 새소리, 바람소리, 조류 움직임 등의 음향이 생생하게 전달돼 감동과 치유의 순간으로 다가왔다.

사계절마다 변모하는 비무장지대의 비경을 한 눈에 비교하며 볼 수 있는 구성이 시각적 몰입도를 높였다. 월정리역, 남북을 잇는 한탄강, 철원 들녘, 삼부연 폭포 등의 모습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별로 영상에 담아 '금단의 땅'의 자연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월정리역의 봄, 철길에 피어난 새싹과 겨울철 내려앉은 눈을 교차시켜 보여주고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는 멋진 영상구성을 비롯해, 남과 북을 오가며 비상하는 두루미, 한겨울 얼음 속에서도 한탄강물이 하나로 이어지는 모습 등 자연의 모습에서 남과 북의 평화로운 미래를 은유적으로 표현해내는 구성도 돋보였다.

역사의 현장을 보여준 점도 분단의 현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노동당사, 제2땅굴, 용양보 호수, 승리전망대, 백마고지 전적지, 승일교, 도피안사 등 쉽게 볼 수 없는 역사의 현장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6. 16.	시청률	0.000

【총 평】

<국민리포트>는 호국보훈의 달 기획 '호국영웅에게 감사의 글쓰기 참여 잇따라'가 돋보였고, 국내외 봉사활동을 소재로 한 '마음은 봉사현장에', '아름다운 노노봉사', '시화호 명물 하얀 빨기꽃 물결' 등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호국영웅 감사해요'는 6.25전쟁당시 영상을 삽입하고, '마음은 봉사현장에'는 코이카단원들의 해외봉사 영상을 보여주며 현장감과 전달력을 높이는 제작기법이 뛰어났다.

【구성 및 내용】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참전 용사를 위한 온라인 글쓰기 행사,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귀국한 코이카 봉사단의 근황, 시니어봉사단의 독거노인 대상 봉사, 시화호 간척지의 빨기꽃, 그밖에 어르신 및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을 소개했다.

■ 호국영웅에게 감사 글쓰기 참여 잇따라

6.25 참전 용사들이 안장되어있는 현충원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호국영웅 감사해요'는 보훈문화 확산 이벤트로 벌이고 있는 대전 현충원의 호국용사에 감사 글쓰기 온라인 행사에 추모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돼 보훈의 의미를 부각시킨 점이 돋보였다. 현충원의 호국영웅에게 감사 글쓰기 온라인 행사를 통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 다시 돌아가겠다. 코로나19에 코이카 해외봉사단 귀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에 있던 코이카 단원들이 일시 귀국해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보낸 후 한곳에 모여 그간의 경험담과 마음고생을 나눴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시 귀국한 코이카 해외봉사단원들이 다시 해외로 돌아가 봉사를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의지와 코로나 장기화로 해외 파견이 늦어지는데 따른 안타까움을 인터뷰를 통해 생생히 표현했다.

■ 아름다운 노노봉사, 독거노인 이불 빨래

충남 홍성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봉사단원들도 나이든 분들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주민 31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모두 65세 이상의 시니어 봉사단으로 이불빨래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신들도 노인이면서 독거노인들을 위해 빨래봉사에 나선 '아름다운 노노봉사'는 흐뭇한 미담 보도였다.

■ 시화호 간척지, 하얀 빨기꽃 물결

시흥 시화호 간척지에서는 하얀 빨기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기존 갯벌이었던 시화호에서 이런 생명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이다. 간척지가 생태계의 요람으로 변한 모습을 영상으로 잘 그려내고 개발에 대한 아쉬움도 언급돼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